

성북천 복원을 위한 근린형 개발 및 평지조성에 관한 연구

유정원^{1*}

¹선문대학교 건축학부

The Study on the Neighborhood-type Development and Flat Open Spaces for the Seongbukcheon Restoration

Jeong-Won Ryu^{1*}

¹Division of Architecture, Sun M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서울시 성북천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근린형 생태하천복원’을 목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공동체적 교류와 편의를 제공하는 근린형 하천복원을 제안하기 위하여 ‘근린형 개발’과 ‘평지 조성’이라는 두 개의 계획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근린형 개발’ 측면에서는 성북천 일대의 주변 가로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평지 조성’ 측면에서는 성북천 일대의 평지형 공개공지 조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성북천 복원 계획상에 평지 조성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wo strategi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Seongbukcheon in Seoul. One is the neighborhood-type development and the other is the construction of the flat open spaces. For the neighborhood-type development, the characteristic of each of the streets which are connected with Seongbukcheon was comprehended and the differentiated approaches for each of them were take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flat open spaces, the necessity of the flat public open spaces was verified and the strategies for this was suggested.

Key Words : Restoration, Neighborhood-type, Flat public open spaces, Development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2005년에 완공된 서울시 청계천복원공사가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면서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복개 또는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체적인 진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성북구청은 2005년 ‘성북비전 2010’에서 성북천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을 발표하였고, 성북천 각 구간에 대한 단계별 복원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현재 한성대입구역~보문동 대광초등학교까지 2.5km 구간의 복원에 이어 대광고에서 청계천 합류부 1km 구간의 생태 하천 복원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성북천 복원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아직 실현

되고 있지 못한 성북2동내 성북초교앞 삼거리 ~ 저류조 공사장 구간에 대한 복원계획 제안을 그 목적으로 하며, 보편적인 생태하천복원이 아닌 성북천 인근 주민들을 위한 ‘마을만들기’ 개념을 추가한 ‘근린형 생태하천복원’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생태하천복원’ 또는 청계천 복원과는 차별화된 성북천 인근 지형과 지리적 특성에 기반함은 물론이고 성북천과 그 일대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도 함께 반영한 ‘성북천 복원’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마을만들기’와 ‘생태하천복원’을 결합한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특성화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 연구이다.

1.2 대상 및 방법

대상지는 성북2동 저류조공사장에서부터 성북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길이의 성북천 상류 복원계획

*교신저자 : 유정원(jwryu2005@hanmail.net)

접수일 11년 06월 18일

수정일 11년 08월 05일

게재확정일 11년 08월 11일

지역과 그 일대이다.

연구방법은 계획대상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 사회·역사적 환경 등의 조사를 위한 문헌자료, 도면자료, 통계자료 등의 조사를 행하였으며, 해당 지역 답사 및 여러 계층의 거주민 대상 인터뷰를 함께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였고, 계획 대상지에 특화된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 대상지 (google map 참조)
[Fig. 1] Site for research

2. 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

2.1 대상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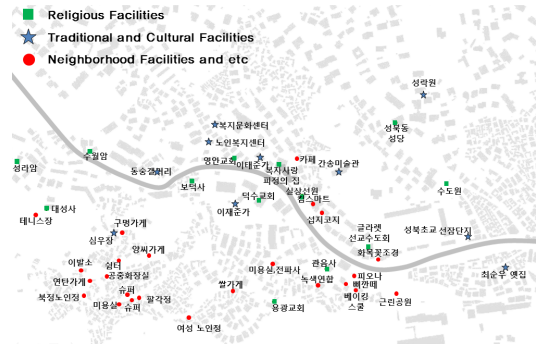
성북1, 2동 인구는 13,974명이며, 인구밀도[3]가 100인/ha 미만으로 성북구 내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주거용이며 건축물은 아파트, 주상복합 및 일반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단독, 다세대, 다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층수는 3-4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6] 성북구 내 타지역에 비해 건축 밀도가 낮은 편이라 볼 수 있다.

2.2 대상지 주요 현황 및 진단

2.2.1 각종 시설 분포

성북 1, 2동과 그 인접지역에는 해곡 최순우옛집, 간송미술관, 심우장, 이재준가, 이태준가, 성락원, 선잠단지 등의 역사문화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갖는 불교, 천주교 및 기독교 등 종교시설들이 다수 입지해 있다. 한편, 오랜 기간 동안 주거지역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근린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성북동길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성북동길의 북측은 비주거용도의 시설이 거의 없는 반면, 남측은 500m정도 마다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 있고, 미용

실, 전파사, 쌀가게 등의 근린시설과 노인정, 공중화장실, 이발소 등이 입지하고 있다.



[그림 2] 각종 시설 분포
[Fig. 2] Distribution of facilities

2.2.2 가로 현황 파악

다음으로는 연구대상지 내에 존재하는 성북동길과 각 주택을 연결하는 ‘가로’ 7개에 대한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주민들의 이동수단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지내 대부분 도로가 상당한 경사를 갖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 주민들의 이동수단 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가로1’(그림 3 참조)은 성북초교와 선잠단지 사이도로이며, 세 갈래 길 중 좌측과 중앙 가로는 대형 필지의 고급주택으로 이어지고, 우측 가로는 좁은 필지의 도시형 한옥(보문동 이상으로 훼손되어 지붕을 보지 않으면 한옥인지 양옥인지를 거의 구분할 수 없음)과 다세대주택이 섞인 강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가로 이어지며 이곳 주민 대다수의 이동수단은 자기소유차량이다.

‘가로2’는 간송미술관과 그 진입도로로서 가로들 중 길이는 약 50m로 가장 짧으나 녹지 상태는 가장 양호한 가로 중 하나이다.

‘가로3’은 성북동길에 가까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대형필지의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이 위치해 있으나, 깊이 들어갈수록 작은 필지에 다세대 중심의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 길은 성북동길 북측과 달리 주로 도보로 이동하는 주민이 많고 다수의 노인들이 마을버스를 통해 시내를 왕래한다. 버스 회차지점에서 10분 이상 걸어서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고지대에도 주택들이 다수 존재한다. 회차지점 부근에는 노인정과 이발소, 슈퍼마켓 등의 근린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거의 항상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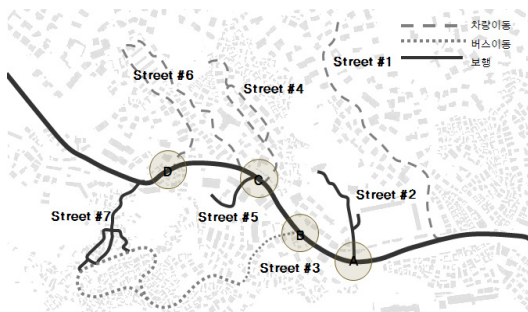
7개의 가로 중에 가장 경사도가 심한 ‘가로4’는 가파른 경사로 인해 가로 양옆으로 노약자 및 신체적 약자를

위해 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이다. 성북동길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비교적 대형필지의 고급주택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작은 필지의 다세대주택이 분포하고 있다.

‘가로5’는 종교시설 부지 안에 필요에 의해 설치한 사유지내도로이다. 소유자인 덕수교회는 유치원과 노인학교를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로6’은 성북2동 동사무소 앞에서 시작하는 순환형 가로이다. 가장 깊은 곳에는 작은 규모의 집합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이 부근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이 도로는 도보로 이동이 힘든 가파르고 긴 경사로이며 대형필지의 주택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도로의 너비도 상대적으로 넓어 자동차 이용에 적합하다.

심우장으로 향하는 ‘가로7’은 7개의 가로 중에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 구불구불하고 좁은 가로는 계단과 경사로가 번갈아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성북동길 주변의 관상형 녹지가 생활형 녹지(곳곳에 위치한 텃밭)로 바뀐 경우이다.



[그림 3] 가로 구분 및 가로별 이동수단
[Fig. 3] Classification and transportation of streets

2.2.3 대상지 인터뷰 결과

연구대상지에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상지 남동쪽으로 상당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10개 초, 중, 고교) 청소년의 취향을 고려한 적절한 시설의 부재가 드러났으며, 고령자들을 위한 운동시설 공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로3은 특히 건강복지시설과 자연친화적 공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표 1] 대상지 주민 인터뷰 내용
[Table 1] Interview with residents

가로1, 가로2 주민 인터뷰 내용
드림 치는 고등학생과 힙합 춤추는 친구 (10대 후반, 남) “이 곳에는 음악(드림, 힙합댄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성북동 일대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홍대 또는

대학로에서 시간을 보내요”
벤치에서 mp3를 들던 고등학생(10대후반, 남) “친구들과 놀 곳이 마땅치 않아 PC방에 가는 편이고, 성북초교 앞의 공부방을 자주 이용해요”
무인 주차장의 경계턱이 않아 쉬는 노인(60대, 여) “위의 공원(성북초교 맞은편의 근린공원)은 운동기구가 있어 좋은데, 아래 공원은 그게 없어서 안 좋아.”
가로3 주민 인터뷰 내용
손자와 함께 귀가하는 노인(60대, 남) “شط터나 자연 그대로의 것이 있으면 좋겠어. 성북천 복원 후에는 비울 때에 못 건너도 좋으니까 인공다리 대신에 징검다리 가 있으면 좋겠고.”
성북02 마을버스 운전기사(50대, 남) “이 버스는 어르신들이 아래쪽에 병원 또는 재래시장에 볼 일 보러 갈 때에 많이 이용해.”

2.3 대상지 분석 결과

앞에서 살펴본 대상지의 주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남북의 주거지 성격이 성북동길을 경계로 환원하게 구별되었다. 성북동길 북측의 가로1, 4, 6은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반면, 성북동길 남측의 가로3과 7은 주로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또는 도보로 이동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필지에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연구대상지는 주거전용지역에 가까우나 각 가로에 따라 필지의 크기, 주택의 유형, 주요 이동수단에 있어 다양함을 보이며 각 가로와 성북동길이 만나는 상황 역시 각기 다르므로, 각 구간에서 근린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발생할 조건을 조성하는 방식이 각기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로1과 2가 성북동길과 만나는 지점인 A구역(자동차사용)과 가로3과 만나는 B구역(마을버스사용: 다수의 노후주거가 밀집되어 있으며, 고령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의 초입부분이어서 지리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이용도가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 그리고 A와 D를 이어주는 하천보행로를 본 연구 계획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A구역과 B구역의 SWOT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A&B구역 SWOT분석
[Table 2] SWOT analysis for district 'A&B'

A구역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풍부한 녹지 초등학교내 생태학습장 간송미술관 부지내공원 인근에 근린공원 위치 문화시설 (간송미술관)	보행자 위한 스텝 부재 차량이용자에게 맞춰진 가로 문화시설 한시적개방(연2회) 활용도가 낮은 근린공원 청소년 위한 공간/시설 부재
Opportunity	Threat
초등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인근에 초중고교 다수 분포	성북1구역 재개발 계획 기존세대수의 30% 증가예상

성북동 거주학생의 통학로 성북구 성곽 보존지역	
B구역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순환마을버스 정류장 주민 통행량이 많음 편의시설이 밀집 커뮤니티 집결장소로 적합	마을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노 인층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지원시 설이 가까이 없음
Opportunity	Threat
순환마을버스의 이동성 적절한 정류장 위치	하천 남북측 간의 단절

3. 계획 방향 및 전략

3.1 근린형 개발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청계천의 접근성과는 달리 성북천 상류구간은 북으로는 삼정터널로 연결되어 보행으로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며 남으로는 한성대 입구 전철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 찾아 오기에도 접근이 쉽지 않을뿐더러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총 길이 500m, 폭 7.5m의 규모(청계천 복원사업 총 길이 5.8km, 폭원 17~50m)는 관광용으로 설정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반면에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연속되는 500m 길이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평지를 찾아보기 힘든 성북2동의 현황으로 볼 때 성북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주민들의 쉼터와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하천과 연계된 새로운 공개공지(평지)조성의 가능성은 근린형 성북천개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점들을 고려하여 성북 2동 주민들을 위한 성북천의 근린형 복원을 제안하며 인근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성북천 개발을 위하여 복원될 성북천과 중심가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중심가로를 사용할 주민들을 중심가로까지 연결시켜주는 경로가 되는 연결가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각 주민가로의 특성과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공개공지 혹은 주민 지원 시설의 형태로 중심가로와 주민가로의 접점에 배치하였다. 또한 각 접점 사이의 연결 구간은 각 접점의 성격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3.2 근린 쉼터 조성을 위한 평지 조성

통계 자료상으로 볼 때 성북구의 공원/녹지량은 양호한 편이다. 공원률은 33.83%에 달하고 1인당 공원면적은 18.33m²/인 으로 서울시 평균 15.25m²/인 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성북구 공원면적 중 북한산 국립공

원이 전체 공원면적의 53.12%를 차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임야를 제외하면 성북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2.56m²/인 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3]. 또한 답사를 통해 파악한 성북2동의 녹지는 풍부한 편이었으나 주민들이 쉬거나 향유할 수 있는 공원 등의 공개공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소규모의 근린 공원은 총 3개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상지내에 2개소, 한성대 입구 전철역 앞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공원 이외의 공개공지도 성북 2동 동사무소 앞, 2번 마을버스 노선상의 정자 등에 불과하여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공개공지가 부족한 것은 대지 전반에 걸친 가파른 경사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 북한산 자락에 들어선 성북2동 지역은 성북천을 중심으로 협곡과 같이 양 방향으로 급한 경사를 이룬다. 이처럼 성북2동은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녹지자체의 면적은 풍부한 편이나 평지로 조성된 공개공지 또는 쉼터의 현황은 열악한 상태이다.

성북2010에 제시된 성북천 상류구간 복원 계획을 살펴보면 500m 구간이 마치 터널과 같이 동일한 폭으로 연속되어 있다. 현재 계획상에 제시된 1.95m의 보도폭과 3m이상의 측벽이 연속된 천변 보행공간으로는 주민들의 생활을 담아낼 근린형 하천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계획안의 기본 골격을 수용하면서 부분적인 변경을 통하여 평지 조성을 도모해 보았다. 평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가로와 성북천 복원 구간과의 접점 부분에 도로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평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지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선형을 변경함으로써 평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반면 옹벽부분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옹벽 부분은 테라스형 노선 상가를 배치함으로써 경사지를 활용하고 도시의 흐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4. 계획안

위에서 수립된 계획방향 및 전략을 기반으로 7개 가로와 성북대로가 만나는 지점 A, B, C, D(그림 3)를 설정하였고, A지점에는 역사경관을 활용한 근린쉼터, B지점에는 고령인구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 및 쉼터, 그리고 하천을 따라 A와 D를 연결하는 선형공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4.1 역사경관을 활용한 쉼터

성북대로에서 바라다 보이는 북한산 서울성곽은 성북 2동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성북2동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곽을 볼 수 있으며 최근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경관을 자랑한다. 하지만 현재 성북2동은 편하게 앉아 여유롭게 서울 성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잘 보존되어 있는 훌륭한 역사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성곽에 대한 최상의 조망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성북대로를 따라 성곽에 대한 조망을 3D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 가장 뛰어난 조망점으로 A구역[그림3 참조]을 선정하였다. 즉, A구역에 서울성곽 조망공원 계획을 제안하며, 이는 인근 학생들을 위한 공연장의 수요도 함께 충족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계단광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단형 공원이기도 하다. 또한 인근 학생들 및 취미학아동의 평지형 운동 및 놀이공간, 고령자들을 위한 체육공원 시설 및 베드민턴장을 함께 계획하여 간단한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체육 시설과 혼합된 놀이터 계획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4.2 저소득층 및 고령인구를 위한 쉼터

B지역에 대해 파악된 특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높은 거주비율을 차지하는 고령인구를 포함한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지원시설을 제안한다. 특히 일반 보건지소의 기능에 더하여 주민을 위한 성인비만 교실, 한방 기공체조교실 개최 등과 같은 주민을 위한 봉사의 장소로서의 보건지소를 그 구체적 안으로 제안하며, 이를 통하여 성북2동 주민의 건강지원과 동시에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역할도 함께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집결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개공지(평지)를 조성하여 마을의 근린쉼터 공간 조성을 제안한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하천변에 여유롭게 쉬러 나온 주민들의 교류의 장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용도를 한정하지 않은 비율의 공간인 소광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평일에는 아이들의 인라인 스케이트장, 동네 유치원 운동회장이 될 수 있으며, 주말에는 토요 나눔장터, 프리마켓 등 다양한 동네 행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성북동길을 사이에 두고 단절된 남, 북측 두 마을을 이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조성하여 하천 복원으로 인해 더욱 단절 될 수 있는 하천 양측 주민의 교류를 도모한다. 이 다리는 양쪽 환경이 다른 두 마을을 잇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양측에 조성될 근린쉼터

를 즐기러 온 동네 주민들이 이 다리를 통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 또는 커뮤니티를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3 성북천변 선형공원

성북비전 2010에 제시된 성북천 복원의 단면도를 살펴보면 하천폭 3.7미터, 양쪽 보도 각 1.9미터, 그리고 양측 2차선 도로와 보도 10미터이다. 즉 하천부분만 치수를 더하여 보면 총 8미터 정도의 폭을 갖는 비좁은 수직용벽이 연속된 하천변 조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계획안은 주민들의 발길이 가지 않을 것이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성북천변 보행로를 적극 활용하여 매력적인 하천변 산책로를 형성하기 위해 선형공원을 제안한다. 즉, 벽면 녹화, 휴식 벤치설치, 계단형 조경, 조명 개성화 등으로 선형 휴식 공원을 조성하며, 국부적으로 생태섬을 조성하여 성북의 녹색 네트워크의 일부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 참여형 알코브형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성북동 아동 미술대회, 주민 시화전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성북주민들이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가족 또는 이웃의 작품을 감상하며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북구청에서 2005년에 발표한 성북2동 성북천 상류 복원 계획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마을 만들기’의 개념을 적극 도입한 ‘성북천 근린형 복원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계획에서는 성북천이 지니는 지형적·지리적·역사적·사회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발 대상지를 세분화하여 각 구역에 대한 차별화된 계획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각 구역의 계획안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안으로 통합, 귀결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지인 성북천 일대의 각 가로들의 지형적·사회적 특성과 편의 시설, 문화 시설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기 특화된 구역들을 설정하고, 각 구역에 적합한 구체적 계획안을 제안하여 그를 ‘근린형 복원’이라는 기초 아래 통합해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발 대상지의 면밀한 검토와 그에 특화된 계획안 도출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개발 계획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여러 정부·지자체 주도형 개발 계획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복개천 복원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변지역의 철거 문제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개발 주체와 주민 협의체 간의 지속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Park So-Hyun, Choi Yee-Myung, Seo Han-Lim, "Understanding Minimum Neighborhood Units in Historic Residential Distric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22 n.9, 2006
- [2] Shin Joong-Jin, Kim Tae-Yeop, "A Study on Renewal Method of Local City Center in Japa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v.23 n.5, 2007
- [3] "Seongbuk Vision 2010", Seongbuk-gu, 2005
- [4] Hugh Barton, "Shaping Neighborhoods" London: Spon Press, 2003
- [5] "A Study for Evaluating Effects of Seongbukcheon Restoration",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4
- [6] <http://seongbuk.go.kr/2006/d1.htm>

유 정 원(Jeong-Won Ryu)

[정회원]



- 1995년 9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대학원 석사 (Master of Arts, MA)
- 2007년 9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 1989년 12월 ~ 1990년 12월 : (주)건원 건축사사무소
- 1996년 3월 ~ 1998년 4월 : (주)삼성건설 CIC팀
- 2000년 3월 ~ 2005년 8월 : (주)두울테크 연구개발 실장
- 2004년 9월 ~ 2009년 2월 :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2008년 3월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9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축설계 및 계획, BIM(건축정보모델링), 디지털건축